

코로나19 위기 중 지역별 청년 고용 추이

- 청년층 고용률의 코로나19 위기 전 대비 최대 감소율이 중년층보다 전국 평균 3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남.
- 지역별로는 부산, 울산, 경북, 전남, 광주, 경기에서 청년 고용률의 최대 감소율이 상대적으로 컸고 회복이 느렸음. 반면, 서울, 대전, 세종, 충북, 경남은 최대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작고 회복도 빨랐음.
-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청년 고용률의 최대 감소 폭이 컸고 느리게 회복됨.
- 여성 및 고졸 이하 청년층 고용률이 위기 초반 큰 폭으로 하락한 후 빠르게 회복됨.

01 분석의 필요성 및 분석 자료

청년 일자리 정책의 경제위기 대응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별 청년 고용 변동의 특징에 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함.

- 코로나19 위기 기간과 회복기의 청년 고용률 변화 양상은 국내 지역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큼.
 - 인구구조, 산업 및 직업 구조, 노동시장 제도적 특징이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임.
- 코로나19 위기가 국내 전체 청년 고용에 미친 영향에 관해서는 상당수 선행 연구가 축적되어 있지만, 청년 고용률 변화의 지역 간 차이에 관한 연구는 부족함.
- 코로나 위기가 청년 고용에 미친 영향은 청년층 내에서도 남·녀 또는 학력 등의 인적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고, 그러한 집단 간 격차 역시 국내 지역 간에 일률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큼.

분석 자료: 통계청, 「지역별고용조사」, 국내 17개 광역 시·도 원자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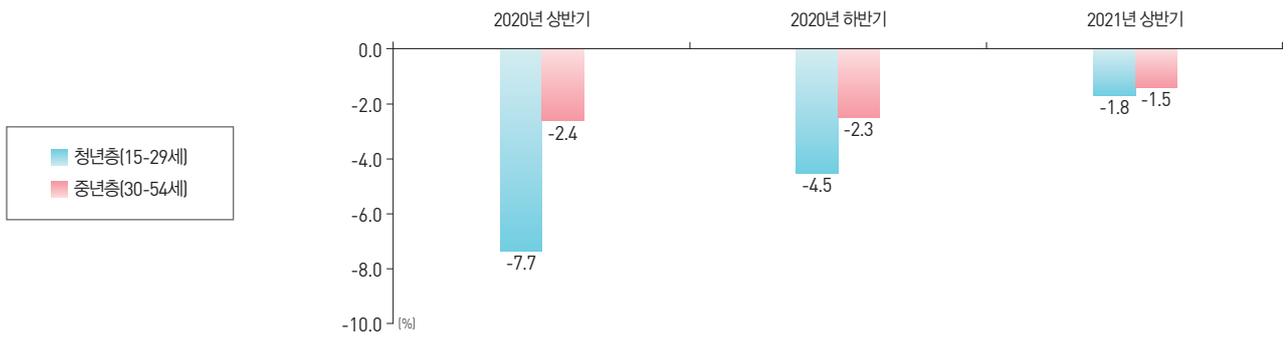
- 이 글은 통계청의 「지역별고용조사」 원자료를 이용하여 국내 17개 광역 시·도의 청년 고용률이 코로나19 대유행 기간(2020년 상·하반기, 2021년 상반기)에 코로나19 발생 이전(2019년 하반기) 대비 몇 퍼센트(%) 증가 또는 감소했는지를 분석함.
- 청년 고용률은 15~29세 인구 중 취업자 비율로 정의함.

02 지역별 청년 고용률 추이

전국 평균 청년층 고용률의 최대 감소율이 중년층보다 3배 이상 큼.

- 2019년 하반기 고용률과 비교해 30~54세 중년층 고용률은 2020년 상반기에 2.4%, 2020년 하반기에 2.3%, 2021년 상반기에 1.5% 감소했지만, 15~29세 청년층 고용률은 같은 기간 7.7%, 4.5%, 1.8% 감소함.
- 이는 청년층이 중년층보다 최대 3배 이상($7.7 \div 2.4 = 3.2$) 큰 고용 충격을 겪었음을 의미함.
- 청년층 고용률 변화율의 최대 감소 폭이 중년층보다 작았던 지역은 17개 광역 시·도 중 대전 한 곳뿐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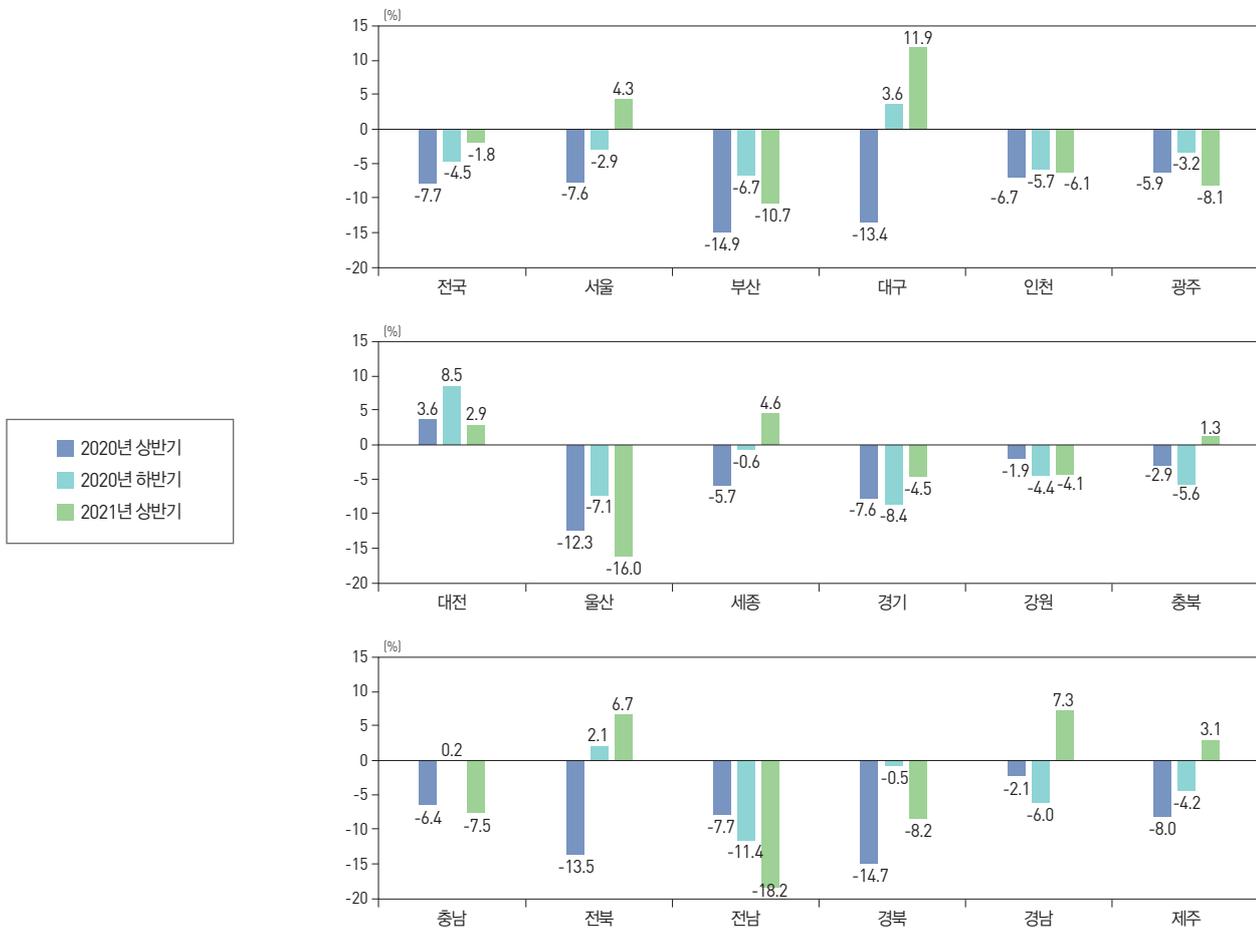




[그림 1] 청년층 및 중년층 고용률의 2019년 하반기 대비 변화율: 전국

청년층 고용률의 위기 전 수준 대비 최대 감소율과 회복 속도는 국내 지역 간에 상당한 차이를 보임.

- (유형 1) 부산, 광주, 울산, 경기, 전남, 경북은 최대 감소 폭이 크고 회복도 느림.
- (유형 2) 서울, 대전, 세종, 충북, 경남은 최대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작고 회복도 빠름.
- (유형 3) 인천, 강원, 충남은 최대 감소 폭은 상대적으로 작으나 회복이 느림.
- (유형 4) 대구, 전북, 제주는 최대 감소 폭은 컸으나 회복이 비교적 빠름.
- 수도권(서울·인천·경기)과 비수도권 간에는 비수도권의 청년층 고용률 변화율이 수도권보다 최대 감소 폭이 더 크고 회복 속도가 느림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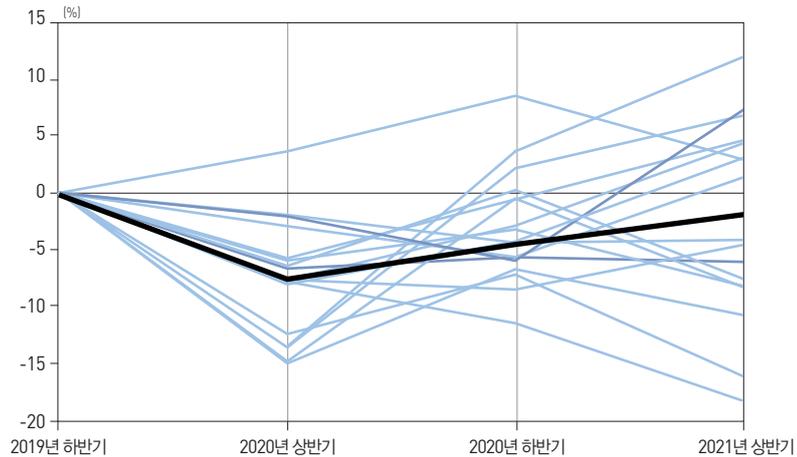


[그림 2] 지역별 청년 고용률의 2019년 하반기 대비 변화율

〈표 1〉 코로나 위기 중 청년 고용률 변화 양상의 네 유형

		회복 속도	
		느림	빠름
최대 감소 폭	큼	부산, 광주, 울산, 경기, 전남, 경북	대구, 전북, 제주
	작음(또는 증가)	인천, 강원, 충남	서울, 대전, 세종, 충북, 경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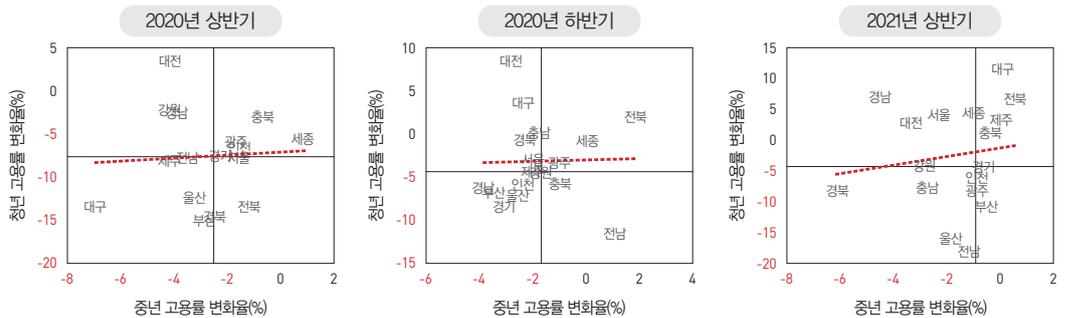
- 코로나19 위기 발생 초기인 2020년 상반기에는 국내 대부분 지역에서 청년 고용률이 급감했지만, 2020년 하반기 이후 회복기로 전환되면서 청년 고용률 변화율의 지역 간 편차가 확대됨.
 - 시간이 지날수록 국내 전체 공통충격의 영향보다 지역 특수적 요인의 영향이 증대되었음을 시사함.



주
가는 실선은 국내 17개 지역, 굵은 실선은 국내 청년의 청년 고용률 변화율임.

[그림 3] 청년 고용률 변화율의 지역 간 편차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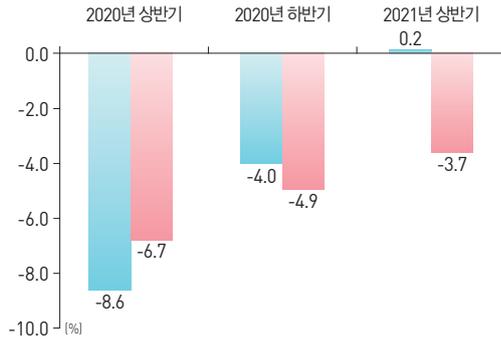
- 지역별 중년층 고용률 변화율과 청년층 고용률 변화율은 대체로 같은 방향으로 변화했지만, 모든 시기, 모든 지역에서 그러한 관계가 강하게 관찰되지는 않음.
 - 같은 지역 내에서도 코로나 충격의 고용 영향이 연령대별로 달랐을 가능성을 시사함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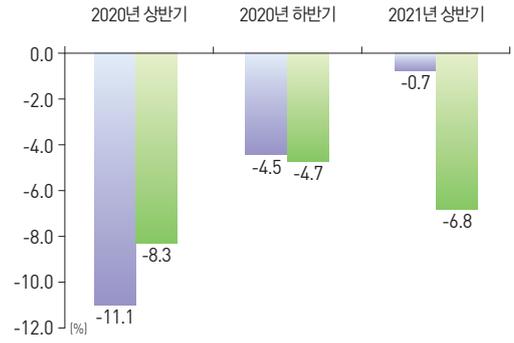
[그림 4] 중년층과 청년층의 고용률 변화율 간 관계

03 지역별 인적특성별 청년 고용률 추이

- | 여성 및 고졸 이하 청년층 고용률이 위기 초반 큰 폭으로 하락한 후 빠르게 회복됨.
 - 여성 청년 고용률은 2019년 하반기 대비 2020년 상반기에 8.6% 감소하여 남성(6.7%)보다 하락 폭이 컸으나, 2021년 상반기에는 남성(-3.7%)과 달리 위기 전 수준 이상(0.2%)으로 회복함.
 - 고졸 이하 청년 고용률은 2020년 상반기에 11.1% 감소하여 전문대졸 이상(8.3%)보다 하락 폭이 컸으나, 2021년 상반기에는 0.7% 감소하여 전문대졸 이상(-6.8%)보다 빠르게 회복 속도를 나타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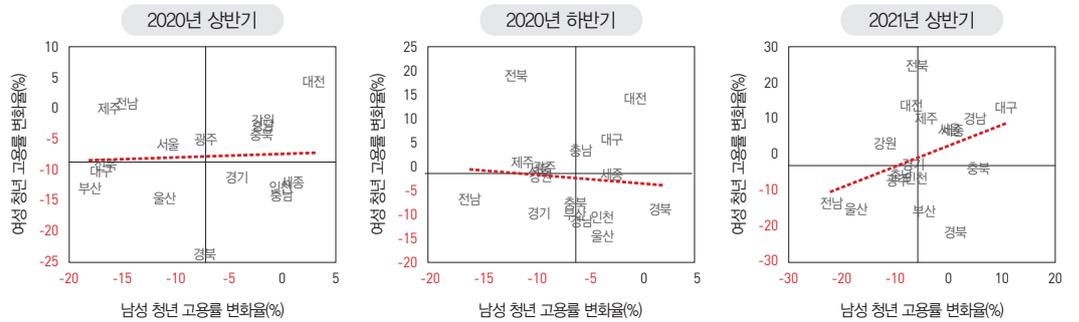


[그림 5] 성별 청년층 고용률의 2019년 하반기 대비 변화율: 전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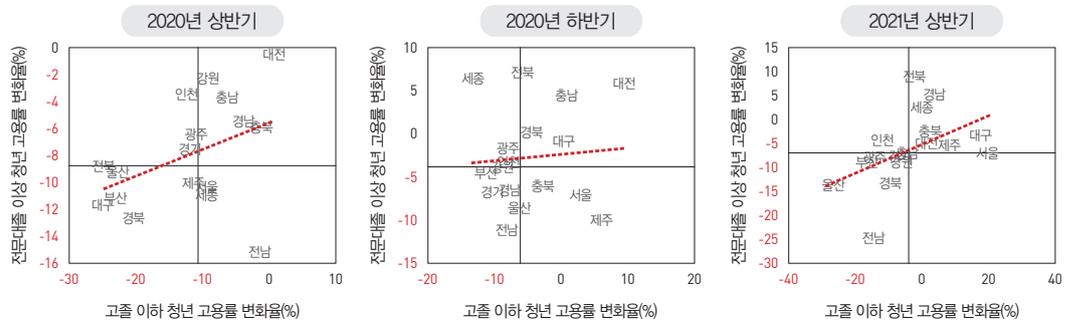


[그림 6] 학력별 청년층 고용률의 2019년 하반기 대비 변화율: 전국

- 성별, 학력별 청년층 고용률 간 관계도 지역 간에 상당한 차이를 보임.



[그림 7] 남성 및 여성 청년층의 고용률 변화율 간 관계



[그림 8] 고졸 이하 및 전문대졸 이상 청년층의 고용률 변화율 간 관계

주 |
수평축과 수직축의 주 눈금선은 17개 광역 시도 지역 중위값을 나타냄. 점선은 선형 추세임.

주 |
수평축과 수직축의 주 눈금선은 17개 광역 시도 지역 중위값을 나타냄. 점선은 선형 추세임.

04 시사점

- 본 연구의 결과는 경제위기 및 회복기의 청년 고용 성과와 포용성 제고를 위한 노동시장 정책 강화 필요성을 뒷받침함.
- 이번 위기의 고용 충격이 중년층보다 청년층에서 훨씬 컸다는 결과는 경제위기 대응 고용·노동 정책에서 청년 일자리 대책의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.
- 본 연구에서 확인한 고용률 추이의 부문 간 이질성은 지역 특수성과 정책대상자별 수요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함.

황 선 응 (부경대학교 경제학과 부교수)
류 기 락 (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)